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9월 16일(주일) 제1213호

CGNTV 유럽기독교영화제 2개 부문 수상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단막드라마 '다시봄'
자체 제작 기독교 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또 한 번 입증

CGNTV가 유럽기독교영화제 2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자체 제작 기독교 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을 또 한 번 입증했다.

CGNTV가 자체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와 단막드라마 '다시봄'이 지난 8일 저녁(현지시간) 독일 부르바흐에서 열린 유럽기독교영화제(CEVMA)에서 수상했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고예산(5만 유로 이상) 다큐/다큐드라마 부문 1등, 단막드라마 '다시봄'이 고예산(5만 유로 이상) 드라마 부문 2등을 수상했다.

심사위원인 릴리انا 올리베리(Liliana Oliveri, CEVMA) 회장은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한 여성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조명해 깊은 울림을 줬고, 드라마 '다시봄'은 유럽과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지만 공감대 형성이 잘 되었다"고 평가했다.

CGNTV가 제작해 2017년 개봉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평생을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섬기며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다.

재연 드라마와 고증을 통해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관객 12만 명을 동원하며 국내 기독교 영화에 한 획을 그었고, ICVM, ICFE 등 국제기독교영화제에서 잇달아 수상하며 해외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단막드라마 '다시봄'은 지난겨울 CGNTV가 제작한 첫 번째 TV 단막드라마다.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시골교회 목사였던 아버지를 잃고 하나님을 떠났던 주인공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찾아 옛 교회에 다시 오면서 회복되는 과정을 그렸다. 배우 황선희가 주연을 맡았고, 배우 성병숙, 심지호, 서태화 등이 출연했다.

CGNTV는 올해도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기



유럽기독교영화제에서 수상한 CGNTV 단막드라마 '다시봄'과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독교 콘텐츠를 제작한다. 올해 연말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의 순간들을 주제로 제작하는 3부작 드라마 '고고송'을 선보일 예정이다.

/ 김명선 기자 k4458@onnuri.org

오늘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론칭

10월 7일까지 참가자 모집

오늘(16일)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론칭을 시작한다. 10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러브소나타 후쿠오카는 오는 11월 13~14일 아크로스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막 오른다. 13일 교회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전야집회), 14일 한일리더십포럼과 러브소나타 집회가 진행된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참가자를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모집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로비에 설치된 안내데스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러브소나타 후쿠오카에서는 이재훈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소프라노 김영미,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 샌드애니메이션 박진이 작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와 후쿠오카 현지는 벌써 집회 준비가 한창이다. 서울 본부에서는 사론데코팀을 중심으로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사용할 화관 제작에 돌입했고, 후쿠



오카에서는 벌써 43개 교회가 협력을 약속했다(관련기사 10면).

문의: 02-749-1149

홈페이지: www.lovesonata.org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9월 30일은 '추수감사주일'

올해부터 추석 다음 주일에 지키기로

9월 30일은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뜻 깊은 날이다.

추수감사절은 1621년 신앙박해를 받았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첫 수확을 하고 3일 동안 열린 축제에서 기원했다. 한국 교회는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올해부터 추석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미국과 한국의 절기가 맞지 않는 걸 고려한 결정이

다.

온누리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캠퍼스, 공동체, 순, 부서별로 쌀 등의 헌물을 모집한다. 추수감사절 헌물은 사회선교본부에서 선정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추수감사절 헌물은 9월 29일까지 서빙고 본관, 양재 사랑을 1층 로비에서 받는다.

캠퍼스는 부천 9월 29일 오후 5시 본당, 대전 29일 목회지원실과 본당, 남양주 29일 오전 11시 본당, 평택 28일 본당, 강동 29일 본당, 양지 29일 본당, 도곡교육관 29일 오후 1시 숙명여고 대강당 로비에서 받는다. 차세대는 9월 30일에 부서별로 추수감사절 헌물을 모은다.

2018년 3차 선교사 파송 명단

구분	파송국	파송명(바이블네임)
장기	멕시코	박성주, 노영이
	남아시아 F국	정시은, 조안나
	중앙아시아 E국	조요한, 박사랑
전문인자비랑	일본	박재원
단기	동아시아 B국	사라
단기	독일	김보숙
FA파송	남아시아 I국	피터, 다니엘, 로데, 에스더, 노아, 다윗
FA파송	동아시아 B국	제이름, 조이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출산율 1.68명을 크게 밑도는 압도적인 꼴찌다. 지구상에서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무이할 전망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많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취업난), 비싼 집값(월세 부담 가중), 양육 문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안 낳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세대와 정반대인 가족이 있다. 가정사역공동체 김선율, 남선덕 집사네다. 김 집사네는 아들만 다섯 명(김형민 21세, 형주 20세, 형서 10세, 형진 8세, 형빈 6세)이다. 아들만 다섯 명 키우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된다며 수군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 부잣집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아들 부잣집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김선율, 남선덕 집사네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이유



아들 부잣집이라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김선율, 남선덕 집사와 다섯 아들들(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선율 집사, 첫째 형민, 남선덕 집사, 둘째 형주, 셋째 형서, 넷째 형진, 다섯째 형빈).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았다

“요즘 아이들은 형제자매가 없어서 많이 외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서로가 친구예요. 동네 놀이터에서 우리 집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고 할 정도로 잘 놀아요. 또 우리 애들은 반찬 투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다른 애가 먹어버리거든요. 큰애와 둘째는 과외 한번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있고요. 둘째가 고2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 안했는데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사정상 재수는 할 수 없어. 또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안 돼. 집 가까운 대학으로 가야 해’라고요. 그 말에 둘째가 충격을 받았는지 고3때 열심히 공부해서 4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우리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것을 실감해요.”

김선율 집사도 아들 자랑을 거들었다. 자녀들이 많은 게 전도에도 도움이 된단다.

“자녀들이 많은 게 전도가 되기도 했어요. 저희 장인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4년 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세례도 받으시고, 지금은 집사 직분도 받으셨어요. 장인장모님께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보여드리면서 삭막한 서울에서 아이도 많이 낳고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비결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드린 것이 호감으로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들이 다섯 명이라 좋은 점이 많았다. 첫째와 둘째가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살피느라 사춘기를 무난하게 지나서 좋고, 형제들이 서로 챙기고 배려하기 때문에 좋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 어른스럽고 자상해서 좋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젊게 사는 것 같아서도 좋다. 아들이 많아서 좋은 이유는 정말 무궁무진했지만 무엇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좋다. 아들 부잣집이라 행복한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면 배신하지 않아요. 자녀를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믿음의 재산 외에는 물려줄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며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꿈꾸세요.”

아들만 다섯, 드라마 제목이 아니다. 실제 아들만 다섯 명 키우는 부부가 있다. 가정사역공동체 김선율, 남선덕 집사다. 사실 아들만 다섯이라는 말을 듣고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편견이었는데도 모른다. ‘한 명도 힘든데 아들 다섯 명을 어떻게 키울까?’, ‘양육비가 많이 들 텐데 돈이 많은가?’ 이다. 너무 궁금해서 아들만 다섯 키우는 장본인들을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 달 식비 얼마나 드나요? 자동차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집은 크가요? 딸보다 아들 키우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김선율 집사와 남선덕 집사가 쉬지도 않고 질문해대는 기자에게 환한 미소로 답했다.

“아이 한 명 키우나 다섯 명 키우나 식비는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비싸고 좋은 것 대신 대용량(업소용) 식자재나 할인상품을 사거든요. 식탁도 크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빨리 먹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작년까지 두 대 있었는데 처분하고 지금은 경차 한 대만 있어요. 첫째와 둘째가 다 컸기 때문에 알아서 다니라고요.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딸과 아들의 양육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하지 않을까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보였다. 아니, 모든 걸 초월했다고 해야 할까? 에너지 넘치는 아들 다섯 명을 키우는 부모로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자녀가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조금 까불기는 해도 다른 집 애들 보다는 얌전한 편이에요(웃음). 곧 추석인데 우리 집은 친척들이 모이지 않아도 아들들만으로도 풍성하고 즐거워요. 아이들도 자기편이 많다면 외로워하지 않고요.”

연년생 아들에서 아들만 다섯으로!

김선율, 남선덕 집사 부부가 처음부터 자녀 다섯 명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아들 다섯 명은 더더욱 계획에 없었다.

“처음에는 두 명만 낳으려고 했는데 젊은부부학교를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도 여느 부부처럼 ‘돈도 없고, 둘도 힘든데 자녀를 어떻게 더 낳아서 키우겠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젊은부부학교가 부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젊은부부학교는 가정사역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부회복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김 집사 부부는 2000년 젊은부부학교(12기)를 수료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자녀를 ‘부모의 힘으로 키워야 할 내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하면서 변했다.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고, 아이 양육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가정사역공동체에 속한 다자녀를 둔 성도들도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2008년 상도동에 있는 교회에서 젊은부부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난 부부들을 보면서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어리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사는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지은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모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녀를 더 낳고 싶더라고요.”

김선율, 남선덕 부부는 마음먹고 바로 실행했다. 이듬해인 2009년 둘째 형주를 낳은 지 꼬박 10년 만에 셋째 형서를 낳았다.

“첫째와 둘째가 셋째한테 참 잘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터울이 있으니까 더 귀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와 둘째가 동생을 예뻐하는 걸 보고 넷째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사실 아들만 셋이라 딸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넷째를 낳았는데...”

또 아들이었다. 넷째를 낳는 그날까지 딸이라고 확신했는데 낳고 보니 아들이었다. 김선율 집사는 딸바보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도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들을 낳고 딸에 대한 마음을 접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아들이 다섯 명이라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았다. 남선덕 집사가 한 치의 고민도 없이 털어놓았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16세기 일어난 종교개혁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개혁이라고 불리지만 실상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1세기 사도들의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15세기 동안이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렸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진리를 사람들은 왜 그토록 깨닫지 못했을까?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게 만든 지도자들의 문제, 언어의 문제 등이 있었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인간의 자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자아를 이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분열된 자아를 사탄이 이용해서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깨닫게 된 진리는 ‘죄인 된 인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마틴 루터나 몇몇 개혁가들에게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을 비취주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거짓과 역사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영적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의 자아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구조, 세상의 문화, 세상의 타락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되고 깨어진 자아를 공격함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기 의존, 자기 의, 자책감

인간의 깨어진 자아는 세 가지 분열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자기 의존(Self-Reliance)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잘못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는 것은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죄 자체가 자아를 분열시키고 왜곡시킵니다. 흔히 “너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엄청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어떤 성공이나 업적을 자신이 만든 결과라고 믿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생활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워져야 하는 존재이자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분열된 자아는 자기 의(Self-Righteousness)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모습은 도덕입니다. 도덕은 선한 것입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모습으로 회자되는 뉴스를 들으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지.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서운 복음의 대적이 ‘자신의 자아’ 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그들의 겉모습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지도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또 하나의 복음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존에 빠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셋째, 자책감(Self-Accusation)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과 정반대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지는 분열된 자아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따

먹고 하나님이 찾으시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심어주신 양심이 작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선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계속 도망가는 것은 사탄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죄는 상관없고 죄인을 미워하는데 몰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람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죄에 넘어진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도구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자책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요,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게 합니다. 자기 의존, 자기 의, 자책감으로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15세기 동안이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진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사탄이 또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문화가 되고, 교회가 사교클럽처럼 되게 해서 교인만 되면, 직분만 받으면, 의롭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크리스천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두 번째 장비는 ‘의의 가슴받이’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가슴받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전부입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자주 써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의롭게 되었다는 단어를 훨씬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난 의입니다”(빌 3:9b).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하나님께서 난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주시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의존하고 있고, 자신의 의와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사탄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고 참소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가리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가 믿는 것은 내 자신도,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가슴받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로서의 책임이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율법을 다 이루고, 진리이신 그분의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추 · 석 · 감 · 사 · 예 · 배

가정 예배 지침

1)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

진을 세워 놓고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소박한 상품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의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포도주와 함께 부었으며 회중은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란 초막절 기간의 마지막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단에 일곱 번 물을 붓는 명절의 절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37절). 이 선포를 통해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호산나 찬미와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나게 하며,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일곱 번 붓는 것은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초막절과 같은 추석은 단순히 곡식의 추수나 풍족한 성취에 대한 감사의 날이라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추수(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열정적으로 감사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의 의미를 “나를 믿는 자”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38절). 목마른 인생의 해갈이란 물질적 공급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외치셨는데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39절).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을(사 44:3)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만족과 감사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부어지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해 줍니다. 초막절과 같은 추석은 어떤 조건과 성과가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된 삶 자체를 감사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나가는 말

추석과 같은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인간의 목마른 삶이란 오직 예수님게로 나아가 그를 믿음으로 써만 해갈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만족과 감사의 이유를 찾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주하시는 삶 자체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함께 모인 가족들은 좋아진 여건이나 뛰어난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삶 자체를 감사로 여기며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늘라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182장(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복음 7:37~39	가족 중에서
설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가정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다같이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경배와 찬양 67장(날 구원하신 주 감사)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가정

들어가는 말

추석을 기독교 명절인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추수감사절의 성서적 기원은 초막절에 있다고 말할 수 있

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추억하며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던 절기로서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물 붓기 의식’이었는데, 이 행사 때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초막절과 같은 추석을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145:1~4	다같이
찬송	찬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5:1~4	가족 중에서
설교	부활의 삶을 사는 인생	설교자
찬송	찬438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부활의 삶을 사는 인생

들어가는 말

고인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단지 지나간 고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아직 삶의 여정 가운데 남

겨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1절) 사도 바울은 만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나 비관적인 슬픔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스런 환희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장막집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든 초막이나 해달의 가죽

으로 덮여진 성막에 거하심에 기원합니다. 초막이나 장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가 이곳 광야가 아니라 영구토록 거해야 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소중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거나 이 땅의 현실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집으로 덧입기를 사모합니다.”(2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향에 대한 믿음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으로 국한되지 않고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는 것과 “덧입고자 함이라”는 고백은 이 땅의 삶을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회피하거나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덧입고 살기를 바라는 경건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의 영광을 덧입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고 합니다.”(4절) 사도 바울이 베티는 자가 아닌 덧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단순

히 종교적인 상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부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강한 의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죽어가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부정과 부패, 분열과 분쟁, 냉대와 소외, 방탕과 음란 등 도처에서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이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가는 말

우리가 지금 고인을 추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덧입고 살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요, 이 땅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살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인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 우리 모두도 부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온누리신문 홈페이지에서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를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기고

영화와 함께 읽는 성경

“너는 큰아들이냐? 작은아들이냐?”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일.하.세.
아카데미 강사)

잘 알다시피 같은 핏줄의 형제라도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대개 장남은 가문의 영광을 이어갈 후계자로 집안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장남을 책임감이 강

하고 성실하며 순종적이게 만든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집안의 결정에 신경을 많이 쓴다. 반면 차남은 상대적으로 가문의 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적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경우가 많다. 반항적이고 개혁적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충동적이고 허랑방탕한 경우도 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는 차남 유형 중에서도 극단적인 경우에 속한다. 모든 경우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최근의 심리학 연구는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이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밝혀냈다.

렘브란트와 무리요의 ‘탕자의 귀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은 ‘탕자의 귀향’이라고도 불리는 비유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이 비유로 대답을 대신하셨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은전을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등 비유시리즈 중에서 그 마지막이 탕자의 귀향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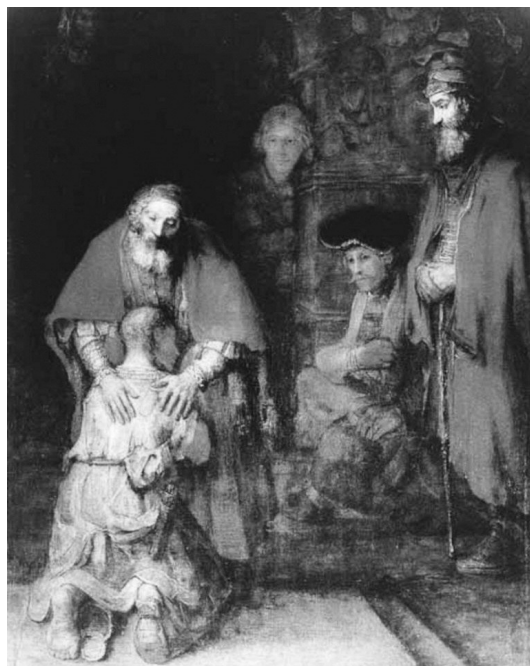
어느 나라에 두 아들이 있었다. 당돌한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떼를 쓴다. 둘째는 돈을 받아마자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탕진했다. 돼지는 부정(不淨)과 탐욕, 더러움과 이기심 등의 상징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치기로 전락한 둘째는 인간실존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참회한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한다.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 나온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을 내놓는다.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벌이며 돌아온 탕자를 환대한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한다.

“저는 여러 해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하지만 저와 친구들을 위해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었어요. 돌아온 탕자를 위해 살찐 송아지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랬다.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지만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옳지



렘브란트(좌)와 무리요(우)가 그린 ‘탕자의 귀향’.

않겠니?”

알브레히트 뒤러, 구에르치노, 에드워드 포인터, 폼페오 바토니 등이 이 비유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림이 렘브란트(1606~1669년)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다.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1617~1682년)가 그린 같은 이름의 그림도 유명하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가톨릭 사제이자 심리학 교수이기도 했던 헨리 나우웬이 같은 이름의 그림 해설집을 내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특히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손이 한쪽은 거칠고 다른 한쪽은 부드럽다는 것에 주목한 헨리 나우웬의 해석이 탁월하다.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대단한 가장’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였습니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부여잡고 어머니의 손은 쓰다듬습니다. 아버지는 확신을, 어머니는 위안을 줍니다. 아버지는 남성성과 여성성, 부성과 모성을 두루 가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충동적 성향의 소유자다. 이 성향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의 에너지는 오로지 지금, 현재에만 집중된다. 탕자는 사람들을 무조건 앞으로만 돌진하게 만드는 도파민이 철철 넘친다. 쾌락이라는 강력한 현재의 보상이 따르는 도박, 술, 섹스 등에 중독되기가 가장 쉬운 타입이다. 그런 둘째 아들이 영락(零落)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환대하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은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한다.

하늘 아버지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려

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누가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를 탕자의 귀향을 맞는 아버지의 양 손을 통해 절묘하게 그려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비유 전체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가 상봉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렸다. 돌아온 작은아들을 아무 말 없이 부둥켜안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버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는 작은아들의 모습, 부자간 만남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무덤덤하게 내려다보는 질투하는 큰아들도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조에 세 부자에게만 빛이 집중하고 있다. 매우 고요하고 정적이어서 저절로 목상이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반면 무리요의 그림은 렘브란트에 비해 성경본문에 훨씬 더 충실하고 현실적이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있는 작은아들, 그리고 이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성경본문에는 없지만 충실함과 순종을 상징하는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치는 장면도 넣었다. 작은아들을 위한 잔치에 쓰일 살찐 송아지가 들어오는 모습은 약간 코믹해서 미소를 짓게 만든다.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작은아들이 입을 옷과 샌들, 반지를 가지고 온 하인의 모습도 담았다. 송아지는 큰아들이 말한 염소새끼와 대조를 이루면서 아버지가 베풀 잔치의 풍성함을 상징한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본향(本郷)으로 돌아갔을 때 베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풍성한 천국잔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좋은 옷과 신발은 당시 신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건이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챙기면서 상속자로서 지위를 잃었던 작은아들의 예전 지위와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권리 회복을 뜻하는 최고

상징물은 반지다. 이집트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는 것(창 41:42)이나 영화 ‘벤허’에서 주인공 벤허가 양아버지에게서 인장반지를 건네받는 장면처럼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아들에게 반지를 주면서 권리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한다. 여기서 무리요는 둘째 아들에게 갈 반지를 들고 하인에게 눈총을 주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형의 불만과 질투를 잘 보여준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우리

비유 속 큰아들은 모범생 스타일이다. 충동적인 둘째와는 대조적으로 성실성 수치가 매우 높다. 이런 타입은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계획에 강하게 집착한다. 도파민 수치가 높아 충동적인 둘째와는 달리 큰아들은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감과 공감을 통한 상호작용이 매우 서툴다. 이러한 유형은 육신의 아버지나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인생의 풍요로움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규정과 의무에만 매달려 감사할 줄도, 기쁨을 누릴 줄도 모른다.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에 빠져 상대방을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비유하신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둘 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무작정 집을 나간 작은아들도 문제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동생을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며, 질투하는 큰아들 역시 모든 집에 있지만 마음은 작은아들처럼 이미 집을 나간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시사한다. 예수님은 렘브란트와 무리요의 그림을 통해서, 아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

“너는 큰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어르신이 행복해야 서초구가 행복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수탁

온누리복지재단이 올해 7월부터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이하 서초노인복지관)’을 서초구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열두 번째 시설이다. 지난 11일, 서초노인복지관 수탁 감사예배 및 개관 9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이재훈 담임목사(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정호욱 목사(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노인복지관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초노인복지관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행복한 노후를 선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꿈을 꾸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서초노인복지관 수탁 및 개관 9주년 기념케익 커팅식.

신들이 사회와 다음세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

어르신의, 어르신에 의한, 어르신을 위한

서초노인복지관은 교대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회원 8천2백3십 명이 이용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이보다 좋은 시설이 없다. 서초노인복지관은 지상 5층, 연면적 2,792㎡ 규모로 미용실, 운동시설, 사회교육실, 정보화교육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하루 평균 1,300명이나 된다.

서초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풍성하다.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재가어르신 촘촘

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다.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삶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사업이다.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드림서포터즈’, ‘더하모니합창단’, 서초구어르신재능기부단 ‘서초골든클럽’ 등이 있다. 드림서포터즈는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더하모니는 서초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방배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음악을 통해 1세대와 3세대가 소통하고 통합하는 장(場)이다. 매년 11월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초골든클럽은 은퇴한 어르신들이 인문학, 여가 등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다음세대에 전수하는 강연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교육사업은 어르신들이 지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다. 교양, 취미, 건강, 정보화 교육 등 70개 사회교육 프로그램

과 늘푸른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토토시니어 페스티벌 전국대회에서는 댄스스포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어린이들의 보육교사 도우미가 되어주는 ‘새싹보듬이’,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밀반찬배달 등을 해주는 ‘또래보듬이’, 지역사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서리풀환경보듬이’ 등이 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재가어르신 촘촘지원사업은 서초구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돕는 사업이다.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무료급식,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초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어르신의, 어르신에 의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있다. 분야는 상담, 이·미용서비스, 재가복지사업(독거어르신 밀반찬 배달, 말벗서비스, 집수리 등), 업무보조 등이다. 또한 1다락방 1사역으로도 섬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순이 한 명의 독거노인과 결연해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는 것이다.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기도과 후원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

문의: 02-3474-6080~2

후원: 신한은행 100-025-3168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사역칼럼



박준기 관장
(서초구립중앙노인
종합복지관)

서초구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 학력이 높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어르신이 많은가 하면 생활이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도 많다.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이하 서초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재능이 많은 어르신들께는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주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는 생활 및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서로 존중

하고, 소통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서초노인복지관의 비전이자 목표다.

서초노인복지관은 올해 7월부터 온누리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어르신에 대한 따뜻한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당 자원봉사를 해준다거나 밀반찬을 만들어 준다거나 밀반찬의 재료를 후원해줘도 좋다. 독거어르신들과 일대일 결연을 맺어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줄 수도 있다. 독거어르신들의 생신을 챙겨드리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줄 수도 있다. 직접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독거

섬김과 나눔의 으뜸

어르신을 위한 물질 후원을 할 수도 있다. 국가가 주는 수급비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로, 친구로, 후원자로 함께하면서 어르신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초구와 서초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기를 바란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듯이 사랑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분명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는다.

서초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때 어르신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서초노인복지관이 섬김과 나눔이 으뜸인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준기 관장은 1998년 8월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했다. 그해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했다. 2006년 1월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부장 및 관장으로 섬겼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및 온누리요양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했고, 올해 7월부터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재난 현장을 가다!

지난여름은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고, 일본,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수해와 지진, 댐 붕괴 사고까지 벌어졌다. 자연재해 앞에 생명과 터전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멀고 위험해도 말이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재난현장을 다녀왔다.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도왔다. 복음의 씨앗도 뿌렸다. 긴급구호 현장을 다녀온 하나님의 대원들이 본지에 간증을 보내와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일본 수해복구 현장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웠다”



이진수 형제
(하늘공동체)

나는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오카야마 수해복구 현장에 다녀왔다. 사실 처음 수해복구 아웃리치를 지원할 때만 해도 사역하러 간다는 생각보다는 일본에 간다는 마음에 설렜다. 그래서 가기 전까지도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오카야마에 도착해서도 며칠 동안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사역이 아니라 봉사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해복구 첫날, 다음날 대풍이 온다고 해서 수해복구 현장에 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오카야마에 온 목적은 수해복구인데 이곳에서 실시한 첫 번째 사역은 한글 교실과 특순 연습이었다. 매우 아쉬웠다. 현지 교회 수요예배에 참석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 이 바뀐 것에 투정 부렸던 나의 잘못된 태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나의 부

정적인 생각을 회개하게 하셨다.

나는 일본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일본 교회와 성도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러브소나타와 일본 아웃리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지 교회 수요예배에서 일본인 성도들과 일본어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약해져 있던 나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 나는 수요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았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쳤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웠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다. 일본 땅이 복음의 땅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



온누리교회 일본 수해복구팀이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가능하다. 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목상하면서 일본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살리기 위해서 수해복구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는 복구하는 중에 나온 절구를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만약 수해복구 사역만 했다면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수해복구 사역은 일본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다.

수해복구를 하면서 주민들이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미소를 보면서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다. 아웃리치에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기도 했다. 나에게 이번 오카야마 수해복구 아웃리치는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였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련해 두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 일본 땅에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한다.

라오스 수해 및 댐 붕괴 현장

힘은 들었지만 왠지 모를 기쁨이...



성광제 성도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라오스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원래 계획은 10월쯤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아웃리치를 가는 것이었다. 6월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웃리치 장소가 라오스로 변경됐다. 출발 일정도 빠르게 확정됐다. 출발 인원은 주차사역팀 목사님과 팀원 5명, NGO 더멋진세상 1명, 라오스에서 합류하는 현지인 3명이었다.

아웃리치 현장까지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고 또 했다. 라오스 국내 여객기 1시간, 또다시 차량으로 여러 시간을 이동했다. 고된 여정이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는 댐 붕괴 사고와 폭우에 의한 수해를 입은 라오스 사남사이 지역에 위치한 테아이 마을에 갔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구호물품을 전달하면서 현지인들을 도왔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테아이 마을은 열대성 폭우와 댐 붕괴로 인해 약 5억 톤의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36명이 사망하고, 98명이 실종된 곳이다. 가옥이 침수되고 파괴되어 이재민이 6천 명 이상 발생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테아이 마을의 4개 촌락 930가정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침구류(이불, 돗자리, 모기장)와 식품류(쌀국수, 식용유, 생선, 간장, 설탕, 조미료) 등을 지원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1,054명에게는 학용품품을 전달했다. 아웃리치팀도 NGO 더멋진세상을 도와서 구호품을 전달했다. 우리가 구호품을 지급한 지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우리가 테아이 마을에 도착할 즈음 때마침 막혀있던 길이 열렸다.

테아이 마을에 도착했다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는 가지고 간 물품을 부지런히 옮겼다. 진흙 위에 놓인 좁은 폭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 무거운 짐을 옮겼다. 힘은 들었지만 왠지 모를 기쁨이 마음 속에 가득했다.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석양을 봤다. 그 석양은 정말 아름다웠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쁜 석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다. 숙소로 도착한 뒤에는 하루 동안 진행했던 사역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팀원들과 나눴다. 특히 라오스 청년 핑과 꺾이



온누리교회 라오스 아웃리치팀이 테아이 마을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에게서 힘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주일에는 방안에 모여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라오스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내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번 아웃리치를 참여한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라도 내 모습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팀원들과 나눴다. 특히 라오스 청년 핑과 꺾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에게서 힘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주일에는 방안에 모여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라오스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온누리 선교 또 하나의 획을 긋다

오늘 2천 번째 선교사 파송 ... 2천/1만 비전 확대 첫 번째 선교사부터 2천 번째 선교사 파송까지

드디어 오늘(16일) 2천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를 계기로 2천/1만 비전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고 확대된다. 2천/1만 비전은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의미였는데 오늘부터는 현장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 2천명으로 그 기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파송된 1만 사역자는 592명, 현재 약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천 번째 선교사 파송을 기념하며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부터 2천 번째 선교사 파송까지의 역사를 살펴봤다. / 김영선, 이소정 기자



① 1988년 시작된 한남동 기도모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② 동아시아 B국에서 농장사역 중인 온누리교회 1호 파송 최선수 선교사.
③ Acts29비전빌리지의 전신인 이천만 훈련원 개원하며,
④ 일본, 동아시아 B국, 중동 F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고 김사무엘 선교사.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만큼 온누리교회를 잘 표현하는 말도 없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개교회(개교회)가 선교사 2천 명을 파송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소수의 목회자나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 몇몇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내든지 가든지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온누리교회 2천/1만 비전은 1994년 선포됐다. 2천/1만 비전이 선포될 당시 온누리교회 성도는 6~7천명이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온누리교회는 단 한 번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이후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망설임이 없어졌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다.

온누리교회는 2천/1만 비전 선포에 앞서 1993년 '헌신자훈련학교'를 시작했다. 국내외 선교사들과 선교 헌신자들을 양성한 헌신자훈련학교는 온누리교회 선교 훈련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러성 같은 선교사와 선교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바로 이곳에서 성장했다. 선교 강좌,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 등도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1988년부터 시작된 '한남동 기도모임'이 그 마중물이다. 한남동 기도모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1982년부터 매년 1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 작정 행사를 실시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선교 헌신으로 시작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행사이다. 올해 선교헌금 작정행사에서는 약 130억 원의 선교헌금을 작정했다.

온누리교회 창립 11주년인 1996년 10월에는 미전도 종족(하니족, 아제리족, 이만족, 브리야트족, 우즈베크족, 베다족, 투르크족, 위그루족)을 입양하면서 2천/1만 비전을 구체화해 나갔다. 1997년 6개 종족(타라후마리족, 미해족, 인타족, 람퐁족, 스와힐리족, 쿠르드족), 1999년 1개 종족(칼라파족)을 추가로 입양하면서 총 15개 미전도 종족을 입양했다. 그때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두란노해와선교회와 NGO 더멋진세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천/1만 비전이 구체화되고 확대되어 가면서 교회의 구성, 양육 프로그램, 유관 기관들이 선교에 최적화되어 갔다. 직간접적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기관(2000선교본부, 해외두란노선교회(TIM), Acts29

비전빌리지, CGNTV,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M 미션 등)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1호 선교사, 1천호 선교사, 2천호 파송 선교사

"저에게 선교는 그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누리 선교를 확장하고 발전시킨 주인공은 선교사들이다. 온누리교회 1호 파송선교사는 최선수 선교사다. 동아시아 B국에서 15년 동안 선교했다. 최 선교사는 1993년 헌신자훈련학교가 개설된 해 57세의 나이에 동아시아 B국으로 파송됐다. 처음에는 치과의사로 사역할 예정이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 선인장을 기르는 농장에서 사역했다. 현지인 청년 7명과 함께 농장을 관리하면서 선교를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었다. 최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최 선교사의 진실된 마음이 청년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다. 현지인들이 먼저 최 선교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왔다. 최 선교사는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때의 감격만큼이나 2천 번째 선교사 파송을 반기고 있었다. 앞으로 선교에 헌신할 후배 선교사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선교지의 모든 문화, 역사, 교통, 음식, 사람을 존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더라고요."

1천 번째 파송 선교사는 함선호 선교사다. 함 선교사는 2007년 부활주일에 동아시아 B국으로 파송됐다. 현지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선교사들을 섬기면서 6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함 선교사의 선교 역사에는 늘 고난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선교지에서 암 투병을 두 번 했고, 두 번이나 소송을 당하고 추방까지 당했다. 지금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선교사 훈련담당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있다. 함 선교사는 선교사들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대사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늘 하나님과 교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2천 번째 파송 선교사는 박성주 선교사다. 오늘 파송 받고 멕시코로 간다. 그곳에서 개척교회 섬김과 제자훈련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 선교사는 "길 잃은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의 영혼들을

품고 끊임없이 교제할 것"이라며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온누리 순교열전

온누리 순교열전도 이어졌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복음의 불모지에 쫓을 파였다. 1993년 동아시아 B국에서 학원 선교와 제과제빵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박모세 선교사가 온누리교회 첫 번째 순교자다. 박 선교사는 2000년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순교했다. 박 선교사가 사역했던 D지역은 지금 선교 교두보가 되어 수많은 선교사와 선교 자원을 동아시아 B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004년에는 김사무엘 선교사가 순교했다. 김 선교사는 온누리교회와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다. 김 선교사는 1995년 온누리교회 선교목사로 부임했다. 일본, 중동 F국, 동아시아 B국 선교에 헌신했다. 2003년에는 전쟁의 화마가 재가시지 않은 중동 F국에 선교의 문을 연 장본인이다. 중동 F국에서 한인연합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던 도중 혈액암에 걸려 투병하다 소천했다.

이외에도 2004년 8월 경남 하동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 사고로 소천한 이태와 형제, 2005년 6월 동아시아 B국에서 교통사고로 소천한 권소망 선교사, 같은 달 인도네시아에서 학원 선교를 하던 전광호 선교사 등이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당신이 2천/1만 비전의 주인공

당신이 2천/1만 비전의 주인공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904명(남아시아 198명, 중앙아시아 24명, 소아시아 35명, 동아시아 385명, 중동 72명, 아프리카 60명, 유라시아 40명, 오세아니아 7명, 북미 28명, 중남미 28명, 발령대기 31명)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앞으로 선교사 1천 1백 명이 선교사로 더 헌신해야 확대된 2천/1만 비전의 한 축이 완성된다.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온누리교회는 장기선교사, 단기선교사, 갈렙선교사(50세 이상 시니어선교사), 전문인자비방선교사, FA선교사(청년 단기), 현지인선교사, TIM협력선교사(타교회소속), 일반 후원 선교사, 일반, 특별장

학선교사를 후원 및 파송하고 있다. 연령과 여건에 따라 교회와 파송 방법을 논의하고 훈련 받으면 된다. 장기선교사는 OSOM(Onnuri School Of Mission), 단기선교사와 FA 선교사는 TP(Turning Point) 훈련을 받는다. 갈렙선교사는 갈렙선교학교를 통해 헌신할 수 있다. 선교사 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00선교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전현직 선교사들은 당장 장기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작은 것부터 헌신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한다. 재능기부, 단기선교, 아웃리치 등을 통해 틈나는 대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 2000 선교본부에서는 직업, 재능 등을 활용해서 직간접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비즈니스, 기도, 요리, 예체능, 건축, 설계, 전기, 시공, 상담 등 무궁무진한 재능을 선교에 활용할 수 있다.

아직도 선교가 어렵지만 하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선교스쿨이나 선교 예배에 참여해서 선교와 친해지면 된다. 선교의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Why Mission?', 총체적 선교(CHE)의 기본정신과 원리를 배우는 '총체적선교학교', 온갖 노년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갈렙선교학교', 무슬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무너뜨리고 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Why Muslim', 복음 통일과 북한사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북한선교학교', 이주민사역의 중요성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주민선교학교', 한국어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게 돕는 '한국어 선교학교', 은사와 전문성을 활용해서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전문인선교학교'가 매년 1~2회씩 진행되고 있다.

선교 예배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목요선교예배'를 드리고, Acts29비전빌리지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30분에 '열방예배'를 드리고 있다.

문의: 2000선교본부 02-3215-3644

선교 스쿨	개요
Why Mission?	선교가 뭘까?
총체적선교학교	전인적인 회복과 선교
갈렙선교학교	노년에도 선교할 수 있다
Why Muslim	이슬람권 이해와 선교
북한선교학교	북한 사역과 복음통일
이주민선교학교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한국어 선교학교	최고의 선교도구 한국어
전문인선교학교	은사와 직업으로 선교하자



⑤ 2007년 1천 번째 함선호 선교사 파송식.
⑥ 이주민선교의 허브인 안산M센터.
⑦ 올해 선교헌금 작정행사에서 약 130억을 헌금했다.
⑧ 오늘 파송받는 2천번째 선교사, 박성주, 노영이 선교사 가족.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8’

23~25일 Acts29비전빌리지, 이주민 700명 참석

은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8’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Harvest 2018은 다음 주일(23일)부터 25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Stand up’을 주제로 막 오른다.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몽골, 러시아

아, 페르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Harvest 2018에서는 세 번의 예배와 간증 나눔, 문화공연, 팀워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박씨마 전도사(페르시아어예배), 한상철 선교사

(A국 선교사) 등이 강의한다.

태국어예배와 캄보디아어예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석집회를 개최한다. 태국어예배는 강화도에서, 캄보디아어예배는 의정부에서 각각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를 연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11기 일.하.세. 아카데미 모집

10월 13일~11월 3일 도곡교육관 충성홀

일하세. 사역팀(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이 ‘11기 일하세.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2층 충성홀에서 진행한다. 일하세. 아카데미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와 능력을 고취시키는 양육 프로그램이다.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 3만 원.

문의: 010-4122-725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치유사역자
아카데미 개강

제22기 치유사역자아카데미가 오는 10월 4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개강한다. 치유사역자아카데미에서는 치유사역자의 역할과 회복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치유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10월 3일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10-7388-9900

목요기도학교 개강
여성사역, 매주 목요일

서빙고 여성사역이 목요기도학교를 개강한다. 9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폭넓고, 더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여성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목요기도학교에서는 ‘중보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3215-3676

1다락방 1사역·식사봉사로 이웃사랑

관악금천, 마포공동체

관악금천공동체 온유다락방이 지난 9일 서울역 인근에 있는 쪽방촌에서 1다락방 1사역을 실시했다. 성도 8명이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에게 식사봉사와 노방전도를 했다.

이종식 다락방장은 “노숙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포공동체는 지난 11일 산마루 교회에서 운영 중인 해맞이대학에 참석한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해맞이대학은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프로그램이다.

노숙인 박수제 씨(78세)는 “온누리교회 마포공동체 성도님들이 식사를 대접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일본어예배 ‘키즈페스타’ 개최

동부이촌동 거주 일본인 320명 참석

지난 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꿈 아이홀(신관 2층)과 골프장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일본어에 배가 ‘키즈페스타’ 행사를 개최한 것. 키즈페스타는 일본의 축제(마쓰리) 체험 행사로, 동부이촌동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주재원들과 어린이들을 교회에 초청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날 키즈페스타에는 일본인 320명이 참석해서 김교스쿠이(물고기 건져 올리기), 페이스페인팅, 풍선

터트리기, 요요낚시, 컬링 등 게임과
가키코오리(일본식 빙수), 지지미
(부침개), 컵젤리, 소떡소떡(소세지,
떡으로 만든 꼬치구이) 등 다양한
간식을 먹으며 축제를 즐겼다.

키즈페스타에 참가한 일본인 아버지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니 아버지로서 기쁘고 즐겁다”면서 “재미있는 놀이를 제공해준 온 누리교회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새가족사역팀, 구원론 특강

9월 30일 오후 1시 서빙고 순형홀

서빙고 새가죽사역팀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론’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9월 30일(주일)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회홀에서 진행된다. 구원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싶거나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성경적 세계관’, ‘구원의 의미’,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주제로 강미향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5249-9024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9월 30일(주일) 오후 5시~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B2)/ 대상자: 5월 11일~9월 5일까지 수료자

가정사역	박유미	동대문중앙	서대문	이민우	여의도	차인숙	김승민
김범중	이흥주	김 철	김윤지	이수현	박성은	최인숙	김은수
장용준	임주웅	이규니	김재영	전지경	용산	일산	김준기
	정해영	최재연	문명숙	최정윤	가속미	박화진	김현선
강서	하진석		임길웅	김동호	김동희	이지연	김희환
강윤필		 동작	이승규	신용산	김명관	최민영	송준우
김은정	관악금천	박은주	진성은	강윤자	박은철	최민준	우승현
김주현	김관자	이용한		김영미	박해청	최정숙	이설화
조해연	김영신		서빙고	남지희	이하윤	홍진영	임재정
	김은옥	마포	남지헌	배선모	함유선		전민영
강촌	윤창복	김유정		전은주		중종로	주혜란
김보화	정수연	김혜미	성동광진	한해진	이수	박진홍	최은순
김희선		노현일	강한승	하운석	김성희	윤 진	최현정
석원균	김포	박명옥	김엘카나		왕 합		한상욱
이단희	김혜숙	박성규	김영국	양천	이성규	OCC	함정미
이준경	한현수	박원규	문상진	김경민	이 호	이예슬	현지영
최은정		이영미	문용석	오수정	전찬효		홍명희
	노원	이예원	박영지	이비오		S브릿지	황범석
고양은평	손인식	이재준	서정옥	황유진	이천	고재훈	
구병삼	안주옥	정두식	유일권		김진경	권오룡	
김두호			윤인규		박훈민	김수아	

■ 47기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전남철 성도(고양은평공동체)

제2의 신혼여행

젊은부부학교는 ‘제2의 신혼여행’이라는 수식어가 있다. 나는 젊은부부학교 시작부터 설렜다. 아내도 많이 기다렸다. 젊은부부학교에서는 자녀들과 잠시 떨어져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젊은부부학교 첫날은 나비넥타이를 예쁘게 하신 조장님들의 미소와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는데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우리 부부의 상처에 새살이 돋는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보면 결혼생활 11년 동안 자녀 셋(서진, 우진, 하진)을 키우면서 아내와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져 갔다. 물론 기쁜 희생이었지만 세 아이의 투쟁 때문에 지치고, 뒤처리 하느라 몸이 남아나지 않았다. 특히 아내의 고생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 우리 부부에게 젊은부부학교는 사막의 단비 같았다.

젊은부부학교에서는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남편의 차이(부부대화), 피플퍼즐, 부부십계명, 재정 원리, 편지 쓰기, 사진 찍기,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이 보석처럼 소중하고 빛난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연애시절에는 서로가 1순위였다. 그런데 어느새 가

정보다는 일,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와 나는 서로에게 마지막 순위가 되기 일쑤였다.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일꾼으로 전락해 있었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젊은 부부학교에 참가하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젊은부부학교의 수많은 순서 중에서 세족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세족식 때 아내의 발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이 작은 발로 아이들이 아플 때 동동 구르면서 뛰어다녔구나.”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몰려왔다. 더 늦기 전에 젊은부부학교에 입학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젊은부부학교가 오는 10월에도 개강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와 기쁨, 신뢰를 회복하는 귀한 스쿨이다. 우리 부부처럼 지쳐 있거나 양금이 쌓인 부부, 벼랑 끝에 서있는 부부들이 젊은부부학교에 와서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48기 젊은부부학교 개강
일정: 10월 13일 ~11월 3일
문의: 010-3897-4555

■ 두란노 아버지학교 스태프 간증



/ 한우일 지부장(두란노 아버지학교)

아버지학교의 세 가지 특징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대한 소개 글을 쓰려고 하니 18년 전 아버지학교를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난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접하기 전에 나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이 없었다. 방황하던 중에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만났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내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방황할 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길을 제시해줬다.

나는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잘못된 생활방식을 고쳤다. 전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늘 억박지르고 몰아붙이곤 했다. 내가 만약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방황하며 건강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 이후 18년 동안이나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남성, 가정의 목자,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들이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버지의 영향력, 남성, 사명, 영성,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다.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고, 크리스천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한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강력한 성령운동이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학교다. 둘째,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연합운동이다. 직분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하며,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학교다. 셋째,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삶의 실천운동이다. 단순히 이론과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니다. 여러 가지 숙제와 나눔을 통해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가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통해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문의: 010-3738-1256

■ 온누리 워십콰이어 간증



/ 박미경 성도(온누리 워십콰이어)

찬양과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온누리 워십콰이어 오디션에 참가해서 대원이 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다. 남몰래 앞에서 노래를 못하던 내가 그저 찬양이 좋아서 열떨결에 온누리 워십콰이어 오디션 참가신청을 했다. 그 일이 이렇게 큰 은혜로 다가올지 몰랐다. 당시 나는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집안에 힘든 문제들이 생겨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하지만 성가대실만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들을 잊고 평온한 마음이 생겼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가 온누리 워십콰이어에 들어온 것은 찬양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치유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음과 건강의 회복까지 이어졌다.

얼마 전에는 말레이시아로 첫 번째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에어컨도 없고 전장에서 낡은 선풍기만 돌아가는 곳에서 찬양을 했는데 감동과 눈물이 넘쳐났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다. 잊고 있던 중요한 사실도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감사를 잊어버

린 채 살아왔다.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한없이 커졌다.

나는 뜻하지 않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온누리 워십콰이어에 들어왔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웃리치까지 와서 눈물과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온누리 워십콰이어에서 만났다. 온누리 워십콰이어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만약 내가 온누리 워십콰이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며 살았을 것이다. 온누리 워십콰이어의 단원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온누리 워십콰이어에서 동역할 성도들을 기다린다.

문의: 010-2111-4657

■ 분당B공동체 대만 아웃리치



/ 이연주 성도(분당B공동체)

대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난여름 분당B공동체는 양재 뮤지컬찬양팀과 함께 대만 마오리현 산완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현지에서 대만 CGNTV가 합류해줘서 통역의 문제는 없었다. 준비해 간 프로그램도 잘 진행됐다. 산완교회가 있는 마오리현은 대만에서도 시골인지만 사람이 많지 않았다. 교회 건물도, 에어컨 상태도 좋지 않았다. 마침 10년 동안 모은 헌금으로 별도의 부지에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제 공정의 70~80%를 마쳐가고 있어서 잘 마무리될 기도만 하면 된다.

우리는 산완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진행했다. 선교사님께서 세대 간 고리가 끊겨 걱정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현지 청년들이 선생으로 합류해주시고 애써주셔서 전 세대의 고리가 이어졌다.

노방전도로 한국의 밤(복음축제)을 홍보하고 요양원에 가서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계셨다. 대만분들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도 준비했다. 대만분들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면서는 헤프닝도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먹던 망고를 생각하고 주문했다가 아이 머리만큼이나 커다란 게 줄줄이 들어왔던 것이다. 양파 냄새에 눈도 못 뜨게 따가워하기도 했다. 그렇게 준비한 식사를 대만분들께서 맛있게 드셔서 흐뭇했다.

풍요로운 대만에는 화려한 사당과 우상 숭배하는 곳이 도처에 있다. 뮤지컬찬양팀은 그런 대만을 향해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다. 대만분들도 같이 춤추게 만든 즐거운 시간이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만이 마주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 나가길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대만 CGNTV에서는 적은 월급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수고를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재정자립이나 협소한 사무실,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한다.

이번 아웃리치는 두 공동체가 연합함으로 각자가 잘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사역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신앙에세이

세 잔의 차



한화수 목사
(동작공동체)

모텐슨이라는 사람은 글자를 모르는 산골 아이들에게 글을 알려주는 일을 했다.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해 주는 일이었다. 또한 학교를 짓는 일을 했다. 이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세 잔의 차>이다. 이 책 내용 중에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장벽을 만난 모텐슨이 마을 추장에 게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온다.

“당신이 우리와 처음으로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면 이방인이고, 차 두 잔을 함께 마시면 친구가 되고, 차 세 잔을 함께 마시면 가족이 되지.”

모텐슨이 혼자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해 주는 것보다 그 일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였다. 모텐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떴다. 그 이후 산골 마을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해 줄 학교 짓기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세 잔의 차를 통한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난 것이다.

나에게도 세 잔의 차와 같은 현상이 있다. 서울역 동작동 쪽방촌이다. 이 마을에는 1,200세대가 모여 산다. 나는 매주 그곳에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다. 나는 아직 그분들에게 이방인이고, 낯선 손님일 뿐이다. 내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분들께 물어보면, “어디서 온 분인데,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핀잔을 준다. 핀잔을 들으면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힘든 인생을 살아온 분들에게 내가 더 힘든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2주 전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한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와 “이런 날도 오시냐?”고

물으셨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행복하게 웃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나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거라며 포장된 비누를 주셨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전보다 친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는 그분과 차 한 잔을 마셨다.

지난주에는 기타를 치면서 쪽방촌 주민들에게 찬양을 불러줬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좀 와 보세요.”

나를 부르는 남자에게 기타를 들고 갔다. 남자에게 가까이 갔더니 진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 대낮부터 술을 마신 것이다. 이 동네에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남자는 나를 옆에 앉히더니 신청곡이 있다고 했다. 신청곡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갈보리 산 위에’를 부를 수 있냐고 물었다. 그 자리에서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를 불러줬다. 그분이 노래를 다 듣더니 신청곡이 하나가 더 있다고 했다. 그분은 ‘어서 돌아오오’를 불러달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라 “그 찬양을 어떻게 아시나요?”라고 물었다. 이 질문을 계기로 그분의 인생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뉴욕의 유명 음식점 셰프였는데 큰 고난을 당하면서 주저앉았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 찬양은 자신이 기도원에 갔을 때 하염없이 울면서 부르고 또 불렀던 찬양이라고 했다.

그분은 계속 나와 이야기하고자 했다. 내가 시간이 돼서 가야 된다고 해도 계속 내 손을 붙들고 이 이야기만 듣고 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그분과 차 한 잔을 마셨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셔보는 것이 어떨까.

권사칼럼

서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장복순 권사
(광명공동체)

광명공동체가 지난달 스리랑카 라투갈리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광명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이번 아웃리치를 중보 기도로 준비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모임을 가졌다. 중보기도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나뉘었다. 아웃리치를 가는 사람과 남아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도 정했다. 아웃리치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도 구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놀랍게 인도해주셨다. 또한 아웃리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알게 하셨다.

처음에는 아웃리치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지 몰랐다.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의논하면서 어린이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선교사님께서는 스리랑카 라투갈리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셨다.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캠프를 준비했다. 이 모든 과정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과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아웃리치에 참여한 분들의 연령대가 50세 이상이라 혹여나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

님께 회개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비행기로만 9시간, 버스로 13시간을 가야 했던 머나먼 곳이라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출발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교회 마당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다. 이 작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장시간 이동으로 지쳐있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캠프를 열었다. 우리가 준비해온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 아이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에게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떡 다섯 개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전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고작 10명 정도였는데 복음캠프가 진행되는 4일 동안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왔다. 어른들도 60명 이상이 참석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몇몇 가정들은 우리가 부모,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줬다. 광명공동체 성도 19명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가정방문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다. 병들어 있는 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많은 분들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서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 스리랑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나영 장로
(강남C공동체)

온누리교회 예산 운영은 최적의 재정 운용시스템을 통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확정되는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효율성에 기초하여 사업 팀 간에 관계중심의 균형을 갖추고 있다. 최근 대형교회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재정투명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종교인소득 과세로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관련된 사회분위기가 싸늘했다.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논의되면서 각계에서 찬반론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2018년 초부터 종교인소득이 과세되고 있다. 더 나아가 종교인소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의 기본체계가 훼손되고 비(非)종교인과의 과세불공평이 초래됐

다고 역풍을 맞았다. 또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어 조세행정의 비효율 및 납세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었다. 이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관련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는 종교단체가 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재정이 슈가 다시 공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교회재정운용의 흐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온누리교회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있다. 세상의 어느 조직이든 사람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리법인은 경영성과와 기업가치가 직접 연관되기에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주로 후원금으로 운영되기에 상대적으로 재정투명성을 더 중시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사회의 어떤 기준보다 재정투명성이 높게 요

재정운용 효율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교회예산은 전체 목회사역에 대한 재정운용의 영적 수치로써 일반 수치와는 차원이 다르기에 두려움과 긴장감이 공존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는 오랜 관습과 특수성으로 예산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것을 꺼려한다.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점을 달리하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이중적 수탁책임을 가진 빛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오히려 자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에서 잠재된 유용과 부정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내부감사의 제도적 운영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예산편성운영제도 및 세부적인 재정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이 있는 내부감사인을 통해 재정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종교단체인 경우,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수용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이는 하나님의 수탁책임자인 교회가 목회사역의 결과를 사회와 공감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교회의 재정투명성 및 효율성은 사람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있다. 향후 외부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회계감사는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감사(audit)의 차원을 넘어 교회 구성원들이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감사(thank)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정투명성에 주의를 기울일 때 사회 속에서 신뢰도가 제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온누리교회에서는 목회철학과 비전에 따른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내부감사를 통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시됨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모범적 틀이 마련되고 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의의 가슴받이

기독교 신앙은 이 위대한 교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선언적, 법정적인 의미

위대한 교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선언적인,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재판장에서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인데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때로 통치자들을 통해 사면이 주어집니다. 죄가 분명히 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법적 선언입니다.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합니다. 사탄이 그를 “율법에 의하면 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지만 때로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시지 않고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했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무죄를 선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분명히 있는데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돌을 던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던진 돌을 자신에게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여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던져진 돌을 자신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둘째, 관계적인 의미로 발전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여겨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권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셔서 그 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골 1:13-14).

‘구속’, ‘죄 사함’이라는 말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의 소극적 표현입니다. 적극적 표현은 의롭게 된 것이고, 소극적 표현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백성으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수혜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뻔뻔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해서 실제로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착용하는 것이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신의 의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끊임없는 자책감이 우리를 덮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이기겠습니까? 의의 가슴받이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4장에서 조카 롯을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구해냈는데 그 이후 두려워졌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롯을 구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워진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자기 의존의 결과입니다. 모든 교만은 자기 의의 결과입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은 자책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진리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곽상학 목사의 말과 말씀 8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랑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보편적인 정서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사랑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감정’

이자 ‘가치’이기 때문에 늘 문화, 예술 콘텐츠 최고의 소재로 자리하고 있다. 현전(現傳)하고 현존(現存)하는 노래 중에 주술가, 군가, 애국가, 교가, 찬송가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대중가요는 사랑을 노래한다. 문학, 무용, 미술, 연극과 함께 인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 문화예술 콘텐츠는 음악이다. 무대 위의 종합예술인 뮤지컬과 문화산업의 첨병을 자임하는 영화는 모든 ‘예술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공생(共生)관계를 유지하는 양대 종합예술의 필수불가결한 예술 장르 또한 다름 아닌 음악(노래)이다.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미스 사이공’, ‘캣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뮤지

컬 ‘아가씨와 건달들(Guys & Dolls)’은 1951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래 뮤지컬의 고전이 된 작품이다. 뉴욕 나이트클럽을 배경으로 만든 이 뮤지컬은 도박에 미쳐 14년째 약혼녀 ‘아들레이드’와의 결혼을 미루고 있는 ‘나싼’과 간간한 선교사 아가씨 ‘사라’가 주인공이다. 사리를 유혹할 수 있는가를 놓고 나싼과 내기를 벌이는 ‘스카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유쾌하고도 코믹한 사랑이야기다. 이 뮤지컬의 제목처럼 이 작품에는 스카이와 나싼이라는 건달이 나온다. 노와르(noir)라는 장르가 생길만큼 범죄나 사회부조리가 작품 소재가 될 정도로 이제는 건달이나 조직폭력배는 친근하기까지 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소위 ‘양강불건’(양아치, 강패, 불한당, 건달)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양아치는 ‘동남아치’에서 온 말이다. 동남아치의 ‘동’이 생략돼 ‘남아치’가 되고, 두음 ‘ㄴ’이 탈락해 ‘양아치’가 된 것이다. 강패는 영어 ‘갱’(gang)에서 따와 ‘갱들의 패거리’라는 뜻으로 ‘강패’(gang牌)라고 부르게 됐는데, 함께 어울려 다니며 말쑥을 일으키는 패거리를 일컫는다. 불한당(不汗黨)은 한자 그대로 ‘땀(汗)을 흘리지 않는(不) 무리(黨)’라는 뜻으로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무위도식(無爲徒食)하

아가시(雅歌詩)와 건달들

는 자들을 이른다. 건달은 불교에서 온 말로 인도어 산스크리트어 ‘간다르바(Gandharva)’에서 유래했다. 간다르바는 떠돌아다니며 향을 먹고 노래와 춤을 추는 음악을 다스리는 신으로 한자로 전사(傳寫)한 것이 ‘건달파(乾達婆)’가 되었고,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은 건달들이 허랑방탕한 인생 가운데 비로소 찾아온 아가씨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가는 이야기를 노래와 춤으로 풀어내고 있다. 인생을 허비하며 빈둥거린 건달 스카이와 나싼을 향해 부른 아가씨 사라의 노래는 보는 관객들의 마음을 저미게 한다. 이 아가씨의 노래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 아가시(雅歌詩)의 노래이다. 읊기, 시편, 잠언, 전도서와 함께 성경의 시가(詩歌) 문학의 한 권인 아가(雅歌, Song of songs)는 세상에 존재하는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의 노래이다.

아가서는 성경임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원색적인 남녀 간 사랑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 포도원 지기였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이 아기는 신본과 국경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전하고 순결한 사랑의 결정체를 보여준다. 결혼과 부부의 아름다움, 더 나아가 풍부한 은유와 다양한 상징이 동원되어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매우 감각적 이면서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아가서는 지금도 매년 유월절(逾越節) 제8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에 의해 낭송되고 있다. 죄에 종살이하던 당신의 자녀를 가슴에 품고 죽음을 넘어선(逾越, passover) 아버지의 사랑이 완성된 그날을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다.

가짜 사랑이 범람하는 이 시대, 마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홍수처럼 밀려드는 사랑노래 속에서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을 찾아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쏟아 부어야 할 예술혼(藝術魂)일 것이다. 건달(乾達)같은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연가(戀歌)를 들려준 아가시(雅歌詩)는 비단 솔로몬만의 노래는 아닐 터. 그 어떤 소방수(消防手)도 진화하기 힘든 불같은 아가시(雅歌詩)는 정열의 러브소나타, 노래 중의 노래(Song of songs)이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여 끌 수 없습니다”(아8:7).

Acts 29

게시판

2018년 9월 16일(주일) | 제1213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광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증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증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증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부림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제7회 성령수련회 모집
일시: 10월 6, 7일 토, 주일
접수: 아이스쿨
문의: 서빙고 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 양재 김현옥 집사(010-8955-3610)

53기 인투 부모 교실
일시: 10월 31일~11월 2일 10시~4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시온홀)
문의: 한순례 전도사(010-9291-8384)

제주 드림교회 증축공사 임차공고
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예정)
마감: 9월 21일 15:00까지
문의: 건축관리부(010-5302-1908)
*인터넷-BNIS 입찰정보 참조

더멋진세상 Staff 구인
분야: Project Manager(홍보/교육/농업)
자격: 관련 전공 필수, 영어 가능자, 해외여행 가능자
서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자유 양식)
제출: bw@abetterworld.or.kr
문의: 02-2271-2248(070-4402-3099)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 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를(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광: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도곡교육관 온유홀 / 오후 2시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양재 살롱기도회 일정 안내
11월 5일까지는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11월 12일부터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김정용 총무(010-5339-4522)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양재 온누리교회 간사 모집
모집: 예배지원 및 행정업무(파트) 간사 1명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양식 제공)
문의: 02-570-7469

일대일 양육자를 위한 세미나
일시: 10월 10일 오후 7시~9시 30분
장소: 도곡교육관 온유홀
신청: 공동체 일대일 연결 사역자
문의: 안지숙 간사(02-570-7349)

부천

0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를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를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광(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 4부(청년) 오후 4:00 분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광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광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0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9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9/2, 9, 16: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
9/23, 30: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
[중고등부 예배] 프레스페이스 3층(송도동 8-10)
[대학청년부/국제예배] 제너럴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프레스페이스 3층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시 25분/오후 2시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사랑부 11:20
꿈땅1부/고등부 9:00 해브리키즈 오후 2시
대학청년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0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이벤텔러를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2층 스크랜터를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CGNTV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미디어와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CGNTV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이름 모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 CGNTV 이사장 이재훈 목사 -

한 영혼을 위한 CGNTV 콘텐츠

예배와 말씀



CGNTV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남원 임마누엘교회 박경숙 사모

교육



<나침반> 덕분에 사춘기 자녀를
이해할 수 있었고, 제 신앙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 시청자 이두나 성도

문화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겨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 T국 김지은 선교사

모바일 콘텐츠



종교를 떠나서 정말 훈훈하고
멋있는 삶이네요. 저도 꼭 봉사
가고 도움드리며 살고 싶어요!

- 노크 페이스북 팔로워 안민희

10월 7일,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명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

10월 7일 정기후원
주일 행사 시 전 캠퍼스에서
드림통을 수거합니다.